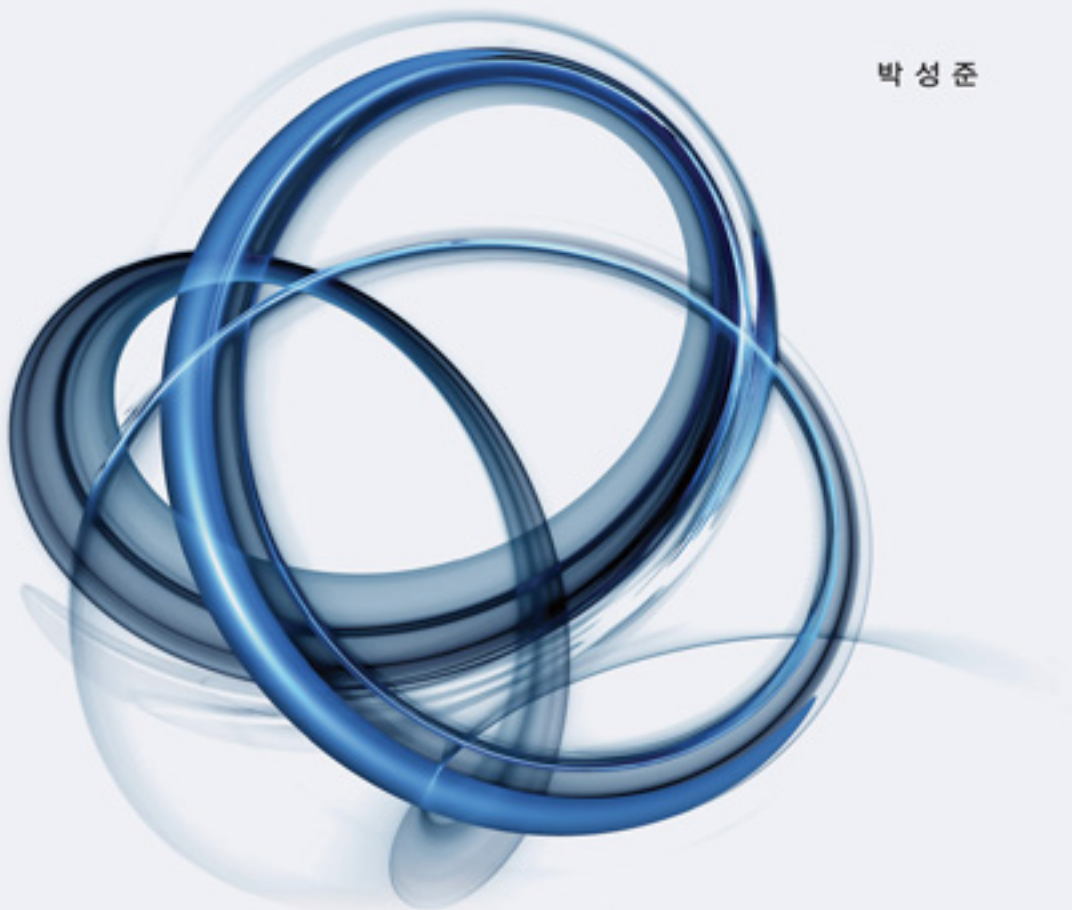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박성준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박성준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1판1쇄 인쇄/ 2010년 2월 18일

1판1쇄 발행/ 2010년 2월 24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3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573-4

5,000원

* 제작대행: (주)FKI미디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노동의 유연안정화(flexicurity) 정책을 유럽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으로 채택하면서 오늘날 노동시장 정책에서 핵심적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기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시장은 매우 유연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하든지(영미형 노동시장) 고용보호는 잘 되어 있지만 노동시장은 경직적(유럽대륙형 노동시장)인 것으로 양분되어 있어 노동시장 정책으로 영미형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대륙형을 채택할 것인지 양자택일의 길밖에 없는 듯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덴마크 및 네덜란드가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자 이들 국가의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에 주목하게 되었다. 덴마크의 경우 기업에는 해고와 채용(외부적 수량)의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자에게는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노동시장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급속한 고용창출, 실업률 급감, 빈곤율 저하 등 노동시장에서 괄목한 성과를 얻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외부적 수량(해고-채용) 유연성 대신 내부적 수량(근로시간의 조정) 유연성을 추구하는 한편 덴마크와 같은 안정성을 채택하여 노동시장에서 높은 실적을 거두었다. 이로써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모델은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모델이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성과를 냈다고 하여 이 모델이 보편화될 수 있을 만큼 타 국가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갖고 있는 내재적 특수성과 유연안정성 정책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낸 것인지 아니면 그 나라의 내재적 특수성과 관계없이 단지 유연안정화 정책을 추구해서 성과를 얻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논의가 중요한 점은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은 일부 유럽 국가에 국한되어 유용할 뿐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이 유연안정성 정책은 세계가 공유할 수 있어 각국의 노사정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보편적 전략으로 기존의 영미형 또는 유럽대륙형 노동시장 전략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보고서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네덜란드 및 덴마크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영미형(고유연-저안정) 또는 유럽대륙형(저유연-고안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인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해 준 본원의 박성준 선임연구위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 견해와 무관함을 밝힌다.

2010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I. 서론	7
II. 기존 문헌 조사	13
III.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추정	17
1. 기초통계	19
2. 유연안정성 지수의 국제비교	22
IV.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29
1. 기술적 분석	33
2. 계량분석	35
V. 결론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39
참고문헌	43
부 록	49
<부록 1> 계량분석 데이터 변수 설명	51
<부록 2> 계량분석 데이터	52
<부록 3> 모델의 회귀계수 값	56
영문초록	57

표 및 그림 목차

<표 1> Wilthagen의 유연안정성 매트릭스(Matrix)	6· 1
<표 2> 유연안정성 추정에 사용할 변수들의 기초통계	02
<표 3> 주성분과 개별 변수 간의 상관관계	32
<표 4> 유연안정성 지수의 국제비교	32
<표 5> 기초통계	13
<표 6> 그룹별 노동시장 성과 비교	43
<표 7> 노동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63
<그림 1> 유연안정성 국제비교	52
<그림 2> OECD 국가의 유연안정성 변화 추이	62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I. 서론



2005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유럽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으로 채택된¹⁾ 노동의 유연안정화(flexicurity) 정책은 오늘날 노동시장 정책에서 핵심적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란 용어는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결합한 용어로서 기업에 해고와 채용의 유연성을 줌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게 하는 한편 노동자에게는 사회안정망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과거 유연성과 안정성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시장은 매우 유연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하든지(영미형 노동시장) 고용보호는 잘 되어 있지만 노동시장은 경직적(유럽대륙형 노동시장)인 것으로 양분되어 있어 노동시장 정책으로 영미형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대륙형을 채택할 것인지 양자택일의 길 밖에 없는 듯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덴마크 및 네덜란드가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자 이들 국가의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에 주목하게 되었다. 덴마크의 경우 기업에는 해고와 채용(외부적 수량)의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자에게는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노동시장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급속한 고용

1) 유럽위원회가 2005년 7월 채택한 「2005-2008년 고용정책 가이드라인」 21 조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 노동시장의 분할을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음. “promote flexibility with employment security and reduce labor market segmentation, having due regard to the role of the social partners”

창출, 실업률 급감, 빈곤율 저하 등 노동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있다. 네덜란드는 외부적 수량(해고-채용) 유연성 대신 내부적 수량(근로시간의 조정) 유연성을 추구하는 한편 덴마크와 같은 안정성을 채택하여 노동시장에서 높은 실적을 거두었는데²⁾ 이로써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모델은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³⁾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모델이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성과를 냈다고 하여 이 모델이 보편화될 수 있을 만큼 타 국가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갖고 있는 내재적 특수성과 유연안정성 정책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낸 것인지 아니면 그 나라의 내재적 특수성과 관계없이 단지 유연안정화 정책을 추구해서 성과를 얻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논의가 중요한 것은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은 일부 유럽 국가에 국한되어 유용될 뿐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이 유연안정성 정책은 세계가 공유할 수 있어 각국의 노사정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보편적 전략으로 기존의 영미형 또는 유럽대륙형 노동시장 전략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네덜란드 및 덴마크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영미형(고유연

2)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정책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 및 과제』(2008)의 3장에 언급되어 있음.

3) 이미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칸디나비아제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ILO에서는 ‘세계고용의제’로 채택하고 있음.

-저안정) 또는 유럽대륙형(자유연-고안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II. 기존 문헌 조사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주로 2000년대에 들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의 유연안정화 전략으로 성공한 국가가 덴마크와 네덜란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덴마크와 네덜란드에 대한 사례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사례 연구로는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일부 학자들⁵⁾은 유연성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 예를 들면 고용보호법제(EPL) 수준 등과 안정성을 대변하는 하나의 변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ALMP) 등을 이용하여 유연안정화 정책의 유용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의 노동시장 정책은 양면성이 있어 사전적으로 뚜렷하게 어떤 정책이 유연성과 관련이 있고 어떤 정책이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Wilthagen and Tros(2004)가 제시하고 Keller and Seifert(2004)가 이용한 Wilthagen의 유연안정성 매트릭스(matrix)인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이는 (내부 수량적) 유연성과 관련이 있지만 동시에 (직무의) 안정성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고용보호법제(EPL)의 수준이 높을수록 외부 수량적 유연성은 저하되지만 직무안정성은 향상되고 여기에 훈련 및 평생학습이 제공되면 내부 수량적 유연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고용의 안정성도 향상된다. 따라서 하

4) 박성준·변양규·정현용(2008), 정원호(2005 a,b), 장희정(2007 a,b, 2008), 황수경(2006), 윤진호(2009)

5) Nickell(1997), Heckman and pages(2000), OECD(2004), Amable, B(2003), Bradley and Stephens(2007), 김형기(2009)

나의 정책을 이용하여 유연안정화 정책을 평가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을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PA)을 통하여 유연성 지수와 안정성 지수로 전환하여 이들 지수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Wilthagen의 유연안정성 매트릭스(Matrix)

유연성 \ 안정성	직무안정성	고용안정성	소득안정성	복합안정성
외부 수량적 유연성	- 고용계약 형태 - 고용보호법제 - 조기퇴직	- 고용 서비스/적극적 노동 시장정책 - 훈련/평생학습	- 실업보험 - 기타 사회보장 - 최저임금	- 휴가기간 중 해고 금지 조항
내부 수량적 유연성	- 근로시간 단축 - 파트타임 계약	- 고용보호법제 - 훈련/평생학습	- 파트타임 보조 혜택 - 연구장학금 - 질병 혜택	- 다양한 휴가 계획
기능적 유연성	- 직무 다변화 - 훈련 - 노동임대	- 훈련/평생학습 - 근무순환 - 팀워크 - 다기술화	- 성과급 임금체계	- 자발적 근로 시간 조정
임금유연성	- 노동비용 조정 - 사회보장보험 삭감	- 사회보장보험 변경 - 고용보조금 - 고용 시 혜택	- 단체임금협상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회보장 혜택 조정	- 자발적 근로 시간 조정

자료: Wilthagen and Tros(2004) 및 한국국제노동재단(2007)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Ⅲ.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추정



1. 기초통계

본 연구는 유연성 지수와 안정성 지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할 노동시장 정책 변수(이하 변수)로 <표 1>의 변수들을 기초로 하되 그중 일부의 변수만을 사용하고자 한다. OECD 30개 국가 중에서 <표 1>에서 제시된 정책 변수들이 모두 가용한 국가가 없어 유연성과 안정성을 측정하는 정책 변수의 수와 국가의 수 사이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유연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정책 변수 중 하나인 고용보호 법제(EPL) 지수가 가용하지 않은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제외한다. 또한 다른 정책 변수들의 장기시계열이 가용하지 않은 일부 동구권 국가들과 멕시코, 터키 등도 분석에서 제외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22개국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다.

또한 <표 1>의 유연성 및 안정성 변수 모두를 OECD 22개국에서 동일하게 찾는 것도 무리가 있다.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의 경우 정책 변수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겠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표 1>의 정책 변수들 중에서 OECD 22개국에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변수들을 추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변수는 고용보호법제(EPL) 지수 세 가지를 포함한 총 8개 정책 변수로 제한된다. 이들 정책 변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호법제(EPL) 지수 중 정규직 고용보호법 수준, 임시직 사용 규제 수준,

정리해고 관련 지수, 총고용 중 파트타임 비중 및 장기실업자 비중, GDP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비중, GDP대비 수동적 노동시장정책 비중 그리고 실업보험의 초기 소득보상률(initial unemployment replacement rate) 등으로 이들 정책 변수의 OECD 22 개국, 1998년, 2003년, 2005년 그리고 2007년 4년치이다.

<표 2> 유연안정성 추정에 사용할 변수들의 기초통계

변수명 나라명	정규직에 관한 고용보호 법제지수	임시직에 관한 고용보호 법제지수	집단해고에 관한 고용보호 법제지수	총고용 중 파트타임 비중(%)	총고용 중 장기실업자 비중(%)	GDP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차지하는 비율(%)	GDP에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차지하는 비율(%)	실업보험의 초기소득 보상률(%)
호주	1.48 (5)	0.88 (5)	2.88 (8)	24.80 (3)	21.05 (16)	0.36 (17)	0.70 (16)	75.25 (12)
오스트리아	2.51 (18)	1.50 (11)	3.25 (15)	14.55 (13)	26.73 (12)	0.60 (13)	1.39 (8)	74.50 (13)
벨기에	1.72 (9)	2.63 (17)	4.13 (21)	17.60 (11)	52.40 (4)	1.24 (4)	2.32 (2)	72.75 (14)
캐나다	1.25 (4)	0.25 (1)	2.63 (6)	18.55 (10)	10.23 (20)	0.37 (16)	0.73 (14)	77.50 (9)
덴마크	1.63 (8)	1.38 (9)	3.69 (17)	17.03 (12)	22.73 (15)	1.59 (1)	2.36 (1)	91.50 (1)
핀란드	2.21 (12)	1.88 (15)	2.63 (6)	10.98 (18)	25.03 (14)	0.95 (7)	1.99 (4)	85.50 (4)
프랑스	2.44 (16)	3.63 (22)	2.13 (4)	13.60 (15)	41.75 (6)	1.00 (5)	1.52 (6)	82.00 (7)
독일	2.84 (19)	1.50 (11)	3.75 (18)	20.05 (7)	53.33 (3)	1.00 (6)	2.13 (3)	78.25 (8)
그리스	2.31 (14)	3.54 (21)	3.25 (15)	7.15 (22)	53.80 (2)	0.13 (21)	0.40 (19)	61.75 (19)
아일랜드	1.60 (6)	0.54 (4)	2.38 (5)	19.20 (9)	36.80 (9)	0.76 (8)	1.03 (11)	70.25 (15)
이탈리아	1.77 (10)	2.32 (16)	4.88 (22)	13.23 (16)	54.98 (1)	0.56 (14)	0.73 (14)	58.00 (20)
일본	1.87 (11)	1.10 (7)	1.50 (2)	19.75 (8)	29.78 (11)	0.25 (19)	0.43 (18)	67.50 (16)
한국	2.37 (15)	1.69 (14)	1.88 (3)	8.08 (21)	0.88 (22)	0.11 (22)	0.18 (22)	54.00 (21)
네덜란드	3.02 (21)	1.49 (10)	3.00 (13)	34.10 (1)	39.73 (7)	1.37 (3)	1.93 (5)	86.50 (3)
뉴질랜드	1.61 (7)	1.03 (6)	0.38 (1)	22.18 (5)	11.98 (18)	0.43 (15)	0.75 (13)	62.50 (18)
노르웨이	2.25 (12)	3.01 (19)	2.88 (8)	20.75 (6)	8.25 (21)	0.72 (10)	0.64 (17)	76.00 (11)
포르투갈	4.25 (22)	2.88 (18)	2.88 (8)	9.95 (19)	43.35 (5)	0.61 (12)	1.11 (10)	83.00 (6)
스페인	2.50 (17)	3.44 (20)	3.13 (14)	9.48 (20)	38.58 (8)	0.71 (11)	1.49 (7)	76.25 (10)
스웨덴	2.86 (20)	1.63 (13)	3.75 (18)	13.88 (14)	19.98 (17)	1.53 (2)	1.20 (9)	88.25 (2)
스위스	1.16 (3)	1.13 (8)	3.88 (20)	24.95 (2)	35.18 (10)	0.73 (9)	0.90 (12)	85.50 (4)
영국	1.08 (2)	0.35 (3)	2.88 (8)	23.38 (4)	25.65 (13)	0.35 (18)	0.25 (21)	65.75 (17)
미국	0.17 (1)	0.25 (1)	2.88 (8)	13.00 (17)	10.40 (19)	0.15 (20)	0.29 (20)	51.50 (22)

주: 1) 1998년, 2003년, 2005년, 2007년 4년치 평균값

2) () 안은 순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표 2>에서 흥미로운 점은 영미계통의 국가들은 정규직 고용 보호법 수준, 임시직 사용 규제 수준, 정리해고 관련 지수 등이 유럽대륙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또한 GDP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비중, GDP대비 수동적 노동시장정책 비중 및 실업보험의 초기 소득보상률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주 관심인 유연안정성을 동시에 높인 국가인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살펴보면 덴마크의 경우 정규직 고용보호법 수준, 임시직 사용 규제 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GDP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비중, GDP대비 수동적 노동시장정책 비중 및 실업보험의 초기 소득보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는 비록 정규직 고용보호법 수준, 임시직 사용 규제 수준, 정리해고 관련 지수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총고용 중 파트타임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GDP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비중, GDP대비 수동적 노동시장정책 비중 및 실업보험의 초기 소득보상률 등은 덴마크만큼이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유연안정성 지수의 국제비교

유연안정성 지수를 얻기 위해 본 연구는 <표 2>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하였다. 주성분 분석은 상호 관련된 여러 변수가 하나의 자료를 구성할 때 이들 변수가 나타내는 변화(variation)를 가급적 유지하면서 자료의 차원(dimensionality of a data set)을 줄이는 방법이다. 즉 변수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되 선형전환(linear transformation)을 통하여 소수의 새로운 변수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8개의 변수들로부터 두 개의 주성분을 도출하였다.

<표 3>은 계산된 두 가지 주성분이 각각의 개별 변수가 가지는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표 3>에 의하면 1998년의 경우 첫 번째 주성분(PC1)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이 높은 EPL 지수, 파트타임 비중 및 장기실업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반면 두 번째 주성분(PC2)은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관련된 노동시장정책 및 소득보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따라서 1998년의 경우 PC1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나타내며, 반면 PC2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2005년, 2007년에는 1998년의 경우와는 반대로 PC1이 안정성을 측정하는 변수들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PC2가 유연성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03년, 2005년, 2007년의 경우에는 PC1이 안정성을 나타내며

PC2가 유연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3> 주성분과 개별 변수 간의 상관관계

구 분	1998년		2003년		2005년		2007년		
	PC1	PC2	PC1	PC2	PC1	PC2	PC1	PC2	
EPL	정규직	0.62	0.23	0.36	0.63	0.41	0.64	0.40	0.65
	임시직	0.85	-0.15	0.18	0.88	0.19	0.87	0.24	0.86
	집단해고	0.62	0.16	0.51	0.21	0.58	0.09	0.59	0.06
파트타임	-0.58	0.39	0.36	-0.76	0.39	-0.74	0.36	-0.77	
장기실업률	0.76	0.20	0.25	0.58	0.49	0.45	0.59	0.31	
노동시장 정책	적극적	0.26	0.85	0.95	-0.01	0.92	-0.02	0.88	0.03
	수동적	0.24	0.87	0.89	0.13	0.88	0.18	0.84	0.24
소득보장률	-0.18	0.83	0.85	0.15	0.86	0.07	0.85	-0.08	
누적분산	36%	63%	42%	65%	44%	66%	43%	64%	

<표 4> 유연안정성 지수의 국제비교

구 분	1998년		2003년		2005년		2007년		평균	
	노동 유연성	노동 안정성	노동 유연성	노동 안정성	노동 유연성	노동 안정성	노동 유연성	노동 안정성	노동 유연성	노동 안정성
호주	0.930	-0.013	0.993	-0.265	1.101	-0.232	1.112	-0.394	1.034	-0.226
오스트리아	-0.263	-0.074	-0.195	-0.020	-0.107	0.092	-0.108	0.261	-0.168	0.065
벨기에	-0.980	0.816	-0.425	1.061	-0.385	1.086	-0.383	1.415	-0.543	1.095
캐나다	1.354	0.225	1.185	-0.559	1.111	-0.691	1.058	-0.688	1.177	-0.429
덴마크	0.110	1.654	0.559	1.870	0.628	1.654	0.622	1.171	0.480	1.587
핀란드	-0.170	0.781	-0.294	0.573	-0.403	0.448	-0.413	0.458	-0.320	0.565
프랑스	-0.585	0.252	-1.220	0.438	-1.341	0.349	-1.298	0.498	-1.111	0.384
독일	-0.801	0.705	-0.233	1.288	-0.092	1.243	-0.020	1.267	-0.287	1.126
그리스	-1.642	-1.702	-1.967	-1.031	-1.954	-1.059	-1.725	-0.838	-1.822	-1.158
아일랜드	0.414	0.177	0.607	-0.265	0.685	-0.232	0.806	0.056	0.628	-0.066
이탈리아	-1.630	-1.201	-0.904	-0.459	-0.486	-0.012	-0.376	0.094	-0.849	-0.395
일본	1.150	-0.474	0.285	-1.014	0.230	-0.970	0.252	-1.023	0.479	-0.870
한국	0.373	-1.805	-0.306	-1.795	-0.568	-1.810	-0.832	-1.804	-0.333	-1.803
네덜란드	-0.196	1.557	1.102	1.822	1.132	1.811	1.302	1.765	0.835	1.739
뉴질랜드	1.792	0.314	0.903	-1.112	0.667	-1.371	0.476	-1.645	0.960	-0.953
노르웨이	0.318	-0.227	0.072	-0.011	-0.132	-0.144	-0.345	-0.298	-0.022	-0.170
포르투갈	-1.175	-0.210	-1.741	0.206	-1.926	0.375	-1.949	0.263	-1.698	0.159
스페인	-1.231	-0.282	-1.572	-0.047	-1.360	0.141	-1.401	0.376	-1.391	0.047
스웨덴	-0.542	1.485	-0.148	0.861	-0.148	0.846	-0.142	0.617	-0.245	0.952
스위스	0.623	0.533	0.990	0.537	1.026	0.599	1.214	0.628	0.963	0.574
영국	0.966	-0.955	1.228	-0.575	1.330	-0.506	1.317	-0.551	1.210	-0.647
미국	1.183	-1.556	1.081	-1.503	0.992	-1.617	0.833	-1.628	1.022	-1.576

<표 4>는 각국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1998년, 2003년, 2005년, 2007년 지수값과 4년치 평균값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은 유연안정성 지도로 4년치 평균 지수값을 이용하여 각 국가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1>을 보면 국가들 간에 일정한 그룹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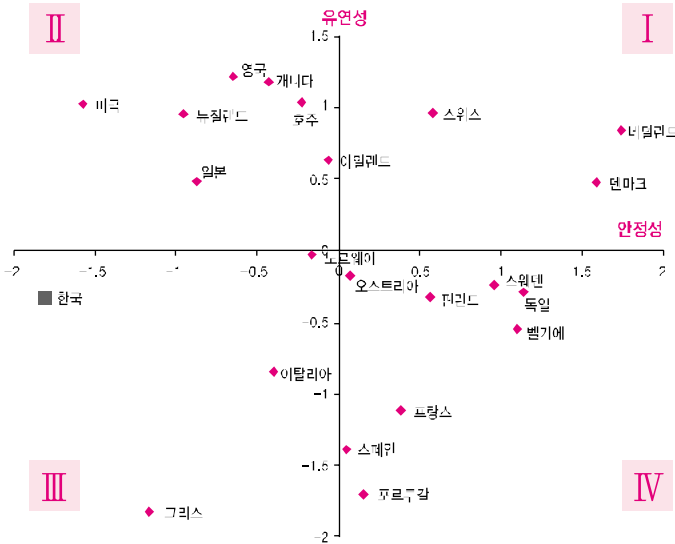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앵글로색슨형(또는 영미형) 그룹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이 낮은 상태이다. 이는 앵글로색슨형 그룹에서 주로 유연성 제고 위주의 노동시장 정책이 실시된 결과일 것이다.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일랜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이 포함된 유럽대륙형 그룹은 앵글로색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성은 낮으나 안정성은 높은 편이다. 반면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포함하는 남유럽형 그룹은 유연성 및 안정성에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덴마크 및 스위스를 포함하는 중북부 유럽형(?) 그룹은 유럽대륙형 그룹과 유사한 안정성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유연성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하나의 아시아권 그룹(?)으로 명명하기에는 서로 매우 이질적인 유연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앵글로색슨계(고유연성-저안정성)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고용보호법제(EPL) 지수가 평균 수준에 머물면서 동시에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반면 실업보험의 소득보장률이 낮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유럽대륙형과 유사하지만 안정성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용보호법제(EPL) 지수가 일본과 유사하지만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낮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질뿐더러 GDP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비중, GDP대비 수동적 노동시장정책 비중 및 실업보험의 초기 소득보상률 등이 OECD 22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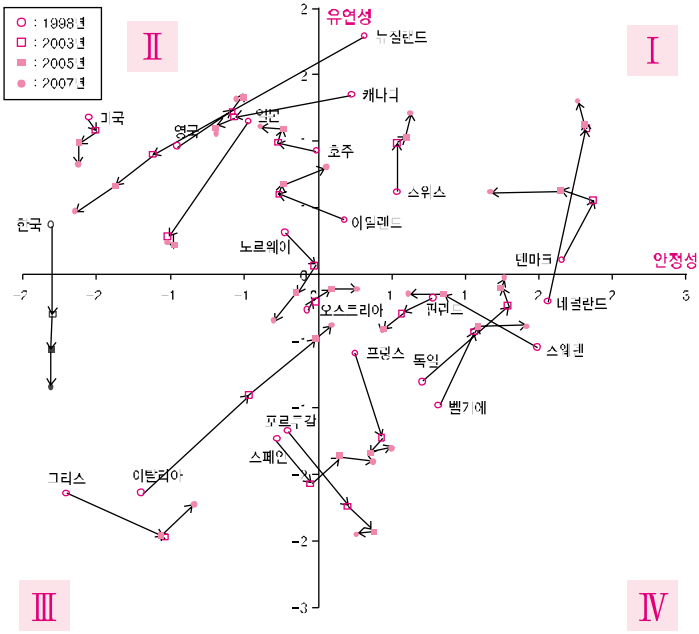
<그림 1> 유연안정성 국제비교



그러면 1998년에서 2007년까지 약 10여 년간 각국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자. <그림 2>에서 보면 유연성과 안정성 모두 향상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모두 악화되는 국가도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유연안정성이 변

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OECD 국가의 유연안정성 변화 추이



일단 10여 년간 유연안정성이 향상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스위스, 네덜란드와 같은 중북부 유럽형 국가들,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등의 유럽대륙형 국가들이 있고 남유럽국 그룹 중에서는 이탈리아가 비약적으로 유연안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포함하는 남유럽형 그룹은 유연성이 모두 뒤쳐진 국가들이며에도 불구하고 10년 사이 안정성이 향상된 반면 유연성은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이 안정

된 국가들로 유연성 향상을 위해 안정성을 다소 희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흥미롭다.

전통적인 앵글로색슨형 국가들은 모두 유연성과 안정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유독 영국만 유연안정성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권 국가를 살펴보면 일본은 10년 사이 유연안정성이 모두 악화된 반면 한국은 유연성만이 더욱 악화된 양상을 띠고 있다.⁶⁾

6) 안정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더 이상 악화될 것이 없음.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IV.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제 본 연구의 주제인 유연안정화 정책이 각국의 노사정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보편적 전략으로 기존의 영미형 또는 유럽대륙형 노동시장 전략을 대체할 수 노동정책인지를 검증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실제 유연안정화 정책이 영미의 고유연-저안정 정책(이하 '유연화 정책')

<표 5> 기초통계

변수명 국가명	고용률 (%)	실업률 (%)	지니 계수	빈곤율 (%)	Inflation rate(%)	Union density(%)	1인당 GDP(달러)
호주	70.60	5.78	0.30	12.10	3.15	22.80	31832
오스트리아	69.18	4.60	0.25	7.48	1.45	34.38	31949
벨기에	59.80	8.38	0.27	9.70	2.13	53.15	30483
캐나다	71.80	7.18	0.31	10.95	2.35	30.15	32575
덴마크	75.80	4.73	0.22	5.10	1.93	72.18	31436
핀란드	67.93	8.95	0.26	6.48	1.58	73.40	28946
프랑스	62.48	9.40	0.28	7.23	1.83	8.13	28164
독일	65.95	9.33	0.28	9.93	1.10	22.60	29652
그리스	59.08	9.75	0.32	13.15	3.80	21.55	23110
아일랜드	65.15	5.35	0.31	14.00	3.20	36.33	35547
이탈리아	56.15	8.45	0.35	12.20	2.53	34.08	27346
일본	69.48	4.43	0.32	14.70	-0.03	19.83	28851
한국	62.45	4.38	0.30	14.60	2.38	10.53	19704
네덜란드	71.63	3.85	0.27	7.13	2.00	21.63	32885
뉴질랜드	73.03	4.83	0.33	9.95	2.78	22.03	23564
노르웨이	76.70	3.73	0.27	6.75	3.28	54.80	41633
포르투갈	67.30	6.80	0.36	13.53	3.13	19.43	19362
스페인	61.00	10.90	0.29	13.43	3.53	15.43	25655
스웨덴	73.85	6.83	0.23	4.90	1.58	76.65	30812
스위스	77.93	3.95	0.27	8.10	0.80	20.03	35073
영국	72.13	5.30	0.34	9.43	2.60	29.03	30385
미국	72.08	5.05	0.36	17.00	2.30	12.35	39045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또는 유럽대륙의 저유연-고안정 정책(이하 ‘안정화 정책’)에 비해 노동시장의 성과가 우수한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성과 지표로 고용률, 실업률 그리고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계량 분석을 통하여 유연안정성 정책이 각 국가의 내재적 특수성과 관계없이 노동시장의 성과를 높이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1. 기술적 분석

유연안정화 정책이 유연화 정책 및 안정화 정책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가 더 나은지를 보기 위해 먼저 각국의 노동시장을 그룹화하여 비교하였다. 이미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았듯이 (Ⅰ 구간)에 속한 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형 그룹(flexicurity)으로, (Ⅱ 구간)에 속한 국가들은 유연형 그룹(flexibility)으로, (Ⅲ 구간)에 속한 국가들은 안정형 그룹(security), (Ⅳ 구간)에 속한 국가들은 유연하지도 않고 안정하지도 않은 경직형 그룹(rigidity)으로 나뉘게 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한다.

<표 6>은 이들 그룹 간의 노동시장 성과라 볼 수 있는 고용률, 실업률, 지니계수 및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유연화 그룹에 속한 국가들과 안정형 그룹에 속한 국가들 간에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연형 그룹의 국가들은 안정형 그룹의 국가들에 비해 고용률은 높은 반면 실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니계수 및 빈곤율에서는 반대로 안정형 그룹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연형 그룹과 안정형 그룹 간에 어느 그룹이 노동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유연안정형 그룹을 살펴보면 고용률은 유연화 그룹보다 높고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또한 지니계수 및 빈곤율에서도 안정형 그룹보다 낮게 나타나 유연안정형 그룹이 이들 두 그룹보다 모든 면에서 높은 성과를 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그룹별 노동시장 성과 비교

구 분	고용률 (%)					실업률 (%)				
	1998년	2003년	2005년	2007년	평균	1998년	2003년	2005년	2007년	평균
유연안정형	70.28	74.93	74.60	74.75	73.27	6.34	4.47	4.63	3.83	4.95
유연형	69.95	70.95	71.31	72.78	71.23	5.43	5.45	4.90	4.63	5.12
안정형	64.53	66.08	66.56	67.26	66.26	8.78	7.93	8.28	7.14	7.96
경직형	58.96	61.54	64.18	67.63	62.48	9.40	7.44	6.48	4.70	7.31

구 분	지니계수					빈곤율 (%)				
	1998년	2003년	2005년	2007년	평균	1998년	2003년	2005년	2007년	평균
유연안정형	0.28	0.26	0.26	0.27	0.27	8.22	6.47	7.23	9.13	7.91
유연형	0.30	0.32	0.33	0.33	0.32	12.40	12.08	12.90	12.58	12.47
안정형	0.26	0.28	0.29	0.29	0.28	6.95	8.70	9.14	9.39	8.67
경직형	0.30	0.30	0.31	0.30	0.30	12.38	12.58	11.35	11.33	12.01

2. 계량분석

이와 같이 노동시장이 유연안정형 그룹에 속한 국가들이 유연형 그룹 국가들이나 안정형 그룹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낸다면 타 국가들도 이들 국가와 같이 유연안정화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유연안정화 정책이 이들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내재적인 특수성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라면 내재적 특수성이 다른 국가에서는 동일한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인가?

본 연구는 과연 유연안정화 정책이 OECD 국가들이 공유할 만한 정책인지를 가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모형을 fixed effect model로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패널 데이터인 관계로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면 개별 국가의 특이성(country heterogeneity)을 통제하여 순수 유연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Y_{it} = \beta_0 + \beta_1 F_{it} + \beta_2 S_{it} + X_{it}\beta + \epsilon_{it}$$

i : OECD 22개 국가

t : 1998년도, 2003년도, 2005년도, 2007년도

Y_{it} : 고용률, 실업률, 소득 불평등 정도(지니계수, 빈곤율)

F_{it} : 유연성 지수

S_{it} : 안정성 지수

X_{it} : 노조 조직률, inflation rate, 1인당 실질GDP

위 식에서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beta_1 + \beta_2)$ 로 표기⁷⁾하고 유연화 정책의 효과는 β_1 , 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β_2 라고 할 수 있다.⁸⁾ 그 결과가 <표 7>이다.⁹⁾

<표 7> 노동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책 \ 노동시장 성과	고용률 (%)	실업률 (%)	지니계수	빈곤율 (%)
유연안정화	3.744	-0.875	-0.015	-2.181
유연화	3.460	-1.354	0.003	-0.142
안정화	-0.047	0.554	-0.017	-1.837

<표 7>을 보면 먼저 고용률에서는 유연안정화 정책은 물론 유연화 정책보다 높게 나오고 있으나 실업률에서는 유연화 정책에 비해 그 감소폭이 적게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 소득의 안정성을 대변하는 빈곤율을 보면 역시 유연안정화 정책이 안정화 정책보다 그 감소폭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소득의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에서는 유연안정화 정책이 안정화 정책에 약간 뒤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연안정화 정책이 고용률과 빈곤율에서는 타 유형의 노동정책보다 노동시장 성과가 좋게

7) Wilthagen, T. and F. Tros(2004)에 따르면 유연안정화 정책은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의도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F 와 S 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으로 이들의 각각의 β 값을 합한 값이 유연안정화 정책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음.

8) 여기서 β_1 과 β_2 는 원래 식에서 추정된 β 값들과는 달리 각각 $Y = \beta_0 + \beta_1 F + \beta_2 X + \mu$ 의 β_1 값이며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beta_1 F$ 대신에 $\beta_2 S$ 의 β_2 값임.

9) <표 7>의 결과는 flexicurity, flexibility 그리고 security에 대한 식을 fixed effect model로 추정하여 구한 것으로 더욱 자세한 추정 결과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나오는 반면 실업률 및 지니계수 면에서는 타 유형의 노동정책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고용률 제고 및 빈곤율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면 유연안정화 정책은 최소한 OECD 22개국이 공유할 만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업률을 낮추거나 소득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면 유연안정화 정책은 공유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V. 결론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덴마크 및 네덜란드와 같은 중북부 일부 유럽 국가들의 노동 유연안정화 정책을 OECD 22개 국가에 적용했을 경우 실제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경우와 같은 노동시장의 성과를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OECD 22개국에 유연안정화 정책을 적용했을 경우 실제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면 유연안정화 정책은 노사정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보편적 노동정책으로서 앵글로색슨계의 고유연-저안정화 정책 및 유럽대륙의 저유연-고안정화 정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유연안정화 정책은 노동시장에서 고용률 제고 및 빈곤율의 감소 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노동유연화 정책이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국가 특유의 내재적 토양과 다른 OECD 국가들의 토양에 이식하더라도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업률 감소 및 지니계수 개선 측면에서는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OECD 국가들이 공유할 보편적인 노동정책이 될 수 없음을 보였다.

이상의 논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당면한 문제가 고용률을 제고하고 빈곤을 극복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듯이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유연안정화 정책은 매우 매력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실증연구에서 보듯이 유연안정화 정책은 어느 국가에 이식하더라도 노동시장에 높은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노동정책으로 유연안정화 정책을 채택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을 비롯한 실업률을 낮추고 소득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유연안정화 정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률 제고, 실업률 및 빈곤율 감소, 소득 양극화 해결의 네 가지 모두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토양에 맞는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OECD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자료 자체의 한계가 있어 계량분석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유념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형기,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연구 - 영국, 독일, 덴마크 3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노동정책연구』 제8권 제3호, 한국노동연구원, pp.93-124.
- _____, “Economic Performance in Three Labor Market Models: Flexibility, Rigidity, and Flexicurity,” 2009년 하계학술대회, 한국노동경제학회, 2009.
- 박성준, 변양규, 정현용,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 및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8.
- 윤진호,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 대한 평가와 한국에의 시사점」,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 평가 및 도입조건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9.
- 정원호(2005a),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비교」, 『국제노동브리프』 3-12(2005. 12.), 한국노동연구원, 2005.
- _____(2005b),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정책에 관한 고찰」, 『EU학연구』, 한국EU회, 2005.
- 정희정,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 비교」, 『국제노동브리프』 6-3(2008. 3.), 한국노동연구원, 2008.
- _____(2007a), 「유연안정성의 나라,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실태」, 『국제노동브리프』 5-9(2007. 9.), 한국노동연구원, 2007.

_____(2007b),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전략: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공동 원칙을 향하여’: 네덜란드. 『국제노동브리프』 5-7(2007. 7.), 한국노동연구원, 2007.

황수경,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형. 『World Labor』 2-6(2004. 6.), 한국노동연구원, 2004.

Abrahamson, P. and W. v. Oorschot, “The Dutch and Danish Miracles Revisited: A Critical Discussion of Activation Policies in Two Small Welfare State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7-3, 2003.

Albrekt Larsen, Christian, “Employment Miracles and Active Labour Market Policy -- A Critical Review of the Danish Evaluations,” Paper for conference at CARMA, Aalborg University, 4-7 Dec 2000, Aalborg University: CCWS, 2000.

Andersen, T. M. and M. Svarer, “Flexicurity: Labour Market Performance in Denmark,” *CEsifo Economic Studies* 53-3, 2007.

Becker, U. and H. Schwartz (eds.), *Employment ‘Miracles’: A Critical Comparison of the Dutch, Scandinavian, Australian and Irish Cases versus Germany and the US*,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5.

Bradley, D. and Stephens, J. D., “Employment Performances in OECD Countries: A Test of Neo-liberal and Institutional Hypothes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 (12), 2007, pp.1-25.

Bredgaard, T., F. Larsen, and P. K. Madsen, “The Flexible Danish Labour Market--A Review,” CARMA Research Papers 1:2005,

- Aalborg Universitet, 2005.
- Bredgaard, T., F. Larsen, P. K. Madsen, and S. Rasmussen, “Flexicurity and Atypical Employment in Denmark,” CARMA (Centre for Labour Market Research) Research Paper 2009:01, 2009.
- Cohn, J., “Denmark, the Model,” *New Republic*, January 15, 2007.
- EIRO, *Denmark: Industrial Relations Profile*, Eurofound, 2009.
- Eriksson, T. and N. Westergaard-Nielsen, “Wage and Labor Mobility in Denmark, 1980–2000,” NBER Working Paper No.13064, April 2007.
- European Commission, “2005 Adopted Employment Guidelines 2005–2008,”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European Commission, 2005.
- _____, “Terminat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s: Legal Situation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April 2006.
- Fre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Flexicurity: A Modern Danish Fairy-Tale: How in the Country of the Blind the One-eyed Man Became King?,” 2007.
- _____, “The Myth of the Scandinavian Model,” 2008.
- Gaard, S. and M. Kieler, “Two Decades of Structural Reform in Denmark: A Review,” Working Paper No.16,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Denmark, 2005.
- Goul Andersen, J. and J. B. Jensen, “Different Routes to Improve Employment in Europe,” in H. Safarri and G. Bonoli (eds.), *Labour Market and Social Protection Reforms in International*

- Perspective*, Asgate, 2002.
- Green-Pedersen, C. and A. Lindbom, "Employment and Unemployment in Denmark and Sweden: Success or Failure for the Universal Welfare Model" in Uwe Becker and Herman Schwartz (eds.), *Employment 'Miracles': A Critical Comparison The Dutch, Scandinavian, Swiss, Australian and Irish cases versus Germany and the USA*, Amsterdam University Press, Amsterdam, 2005 (with Anders Lindbom), pp.65–85.
- Hall, P. A., "Danish Capit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J. L. Campbell et al. (eds.), *National Identity and the Varieties of Capitalism: The Danish Experience*, DJOF Publishing, Copenhagen, 2006.
- Heckman, J. and C. Pages, "The Cost of Job Security Regulation: Evidence from Latin American Labor Markets," NBER Working Paper, No.7773, 2000.
- Jespersen, S., J. R. Munch, and L. Skipper, "Costs and Benefits of Danish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Labor Economics*, 15–5, October 2008.
- Keune, M., "Flexicurity: a Contested Concept at the Core of the European Labour Market Debate," *Intereconomics—Review of European Economic Policy*, 43–2, Mar.–Apr. 2008.
- Madsen, P. K.(2006a), "Flexicurity: A, "FIPerspective on Labour Markets and Welfare States in Europe," Background Paper for Presentation at the DG EMPL Seminar on Flexicurity, Brussels, May 18, 2006.

- _____(2006b), “How Can It Possibly Fly?: The Paradox of a Dynamic Labour Market in a Scandinavian Welfare State,” in Campbell, J. L., J. A. Hall, and O. K. Pedersen, *National Identity and the Varieties of Capitalism: The Danish Experience*, DJØF Publishing, 2006.
- Madsen, P. T., “The Most Quoted Danish Economic Expert and the Welfare State: Bias in Practice,” What is ‘Welfare’? Winter Symposium: Study Circle 1 under Nordisk Som Pruniversitet (NSU), Bergen, Norge, September 6, 2008.
- Mailand, M., “Corporatism in Denmark and Norway: Yet Another Century of Scandinavian Corporatism?,” Contribution to Special Issue on the Nordic Countries of “WSI Mitteilungen—Monatszeitschrift des Wirtschafts—und Sozialwissenschaftlichen Instituts in der Hans—Böckler—Stiftung,” 2009.
- Nickell, S., “Unemployment and Labor Market Rigidities: Europe and North America,”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11 No.3, Summer, 1997, pp.55–74.
-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2004.
- _____, “Employment Protection Regulation and Labour Market Performance,” OECD, 2004.
- _____, *Benefits and Wages*, OECD, 2007.
- _____, *Economic Survey of Denmark*, OECD, 2008.
- _____(2009a),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OECD, 2009.
- _____(2009c), OECD.Stat Extracts, 2009.

- Tangian, A. S.(2004a), "Defining the Flexicurity Index in Application to European Countries," Diskussionpapier Nr.122, April 2004.
- _____(2004b), "Liberal and Trade-unionist Concepts of Flexicurity: Modelling in Application to 16 European Countries," WSI-Diskussionspapier Nr.131, WSI in der Hans Böckler Stiftung, October 2004.
- _____, "European Flexicurity: Concepts (Operational Definitions), Methodology (Monitoring Instruments), and Policies (Consistent Implementations)," WSI-Diskussionspapier Nr.148, WSI in der Hans Böckler Stiftung, October 2006.
- _____, "European Flexicurity: Concepts, Methodology, and Policies," *Transfer*, 13-4, Winter 2007.
- Tros, F., "Towards "Flexicurity" in Policies for Older Workers in EU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IREC Conference, Utrecht, 26-28 August 2004.
- Vandenberg, P., "Is Asia Adopting Flexicurity? A Survey of Employment Policies in Six Countries," Economic and Labour Market Paper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8.
- Wilthagen, T. and F. Tros, "The Concept of "Flexicurity": A New Approach to Regulating Employment and Labour Markets," *Transfer*, 10-2, 2004.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부 록



<부록 1> 계량분석 데이터 변수 설명

변 수	설 명
고용률	Share of persons of working age (15 to 64 years) in employment
실업률	As a percentage of civilian labour force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after taxes and transfers) Current definition
빈곤율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50 percent of the current median income Current definition
inflation rate	Real GDP growth Annual growth in percentage
union density	Trade Union Density
1인당 GDP	GDP per capita US dollars, current prices and PPPs

<부록 2> 계량분석 데이터

1. 1998년

국가명 \ 변수명	고용률 (%)	실업률 (%)	지니 계수	빈곤율 (%)	Inflation rate (%)	Union density (%)	1인당 GDP (달러)
호주	67.90	7.70	0.30	11.40	0.10	27.80	24662
오스트리아	67.80	4.50	0.23	7.40	0.40	38.40	26083
벨기에	57.30	9.30	0.28	10.80	2.10	54.60	24342
캐나다	68.90	8.30	0.29	9.50	-0.40	31.00	25554
덴마크	75.30	4.90	0.21	4.70	1.20	75.50	26146
핀란드	64.80	11.40	0.23	4.90	3.40	78.00	22666
프랑스	59.40	11.00	0.28	7.50	0.90	8.50	22800
독일	64.70	9.00	0.27	8.50	0.60	25.90	24256
그리스	55.60	11.10	0.32	13.90	5.20	28.90	16510
아일랜드	59.60	7.60	0.32	11.00	6.60	41.50	24014
이탈리아	52.20	11.40	0.35	14.20	2.60	35.70	23732
일본	69.50	4.10	0.32	13.70	3.40	22.50	23985
한국	59.20	7.00	0.30	14.60	5.80	11.40	13644
네덜란드	69.50	3.80	0.25	6.30	1.90	24.50	25486
뉴질랜드	69.60	7.40	0.33	8.40	1.30	22.00	18685
노르웨이	78.30	3.20	0.25	7.10	-0.80	55.50	27421
포르투갈	66.80	5.00	0.34	14.60	3.80	21.00	15176
스페인	52.40	15.00	0.28	11.80	2.50	16.30	18896
스웨덴	71.50	8.20	0.22	3.70	0.60	81.30	24269
스위스	78.00	3.50	0.28	7.50	0.30	21.60	29656
영국	71.00	6.10	0.30	10.90	2.20	30.30	23311
미국	73.80	4.50	0.35	16.70	1.10	13.40	31485

2. 2003년

국가명	변수명	고용률 (%)	실업률 (%)	지니 계수	빈곤율 (%)	Inflation rate (%)	Union density (%)	1인당 GDP (달러)
호주		70.00	5.90	0.29	12.20	3.50	22.80	31139
오스트리아		68.90	4.30	0.25	9.30	1.20	34.40	31096
벨기에		59.30	8.20	0.28	10.40	1.60	52.20	30146
캐나다		72.20	7.60	0.31	10.30	3.30	30.30	31242
덴마크		75.10	5.40	0.22	5.10	1.60	72.40	30441
핀란드		67.90	9.10	0.26	6.40	-0.40	72.90	27703
프랑스		63.30	9.00	0.29	7.20	1.90	8.20	27410
독일		64.60	9.30	0.27	9.20	1.20	23.00	28579
그리스		58.90	9.70	0.34	13.50	3.70	24.40	22577
아일랜드		64.90	4.70	0.29	15.40	2.50	37.90	34452
이탈리아		56.20	8.50	0.34	11.80	3.10	33.50	27149
일본		68.40	5.30	0.33	15.30	-1.60	19.70	27483
한국		63.00	3.60	0.30	14.60	2.70	10.80	19030
네덜란드		71.80	3.70	0.28	6.80	2.20	21.20	31716
뉴질랜드		72.50	4.60	0.33	9.80	3.10	21.70	23223
노르웨이		75.80	4.50	0.26	6.30	3.00	55.10	38316
포르투갈		67.10	6.40	0.35	13.70	3.20	18.90	18799
스페인		60.70	11.10	0.27	13.70	4.10	15.80	24759
스웨덴		74.30	5.60	0.24	5.30	1.90	78.00	30076
스위스		77.90	4.30	0.28	7.50	1.00	20.10	33696
영국		72.60	5.00	0.37	10.20	3.10	29.00	29863
미국		71.20	6.00	0.35	17.10	2.10	12.40	37489

3. 2005년

국가명	변수명	고용률 (%)	실업률 (%)	지니 계수	빈곤율 (%)	Inflation rate (%)	Union density (%)	1인당 GDP (달러)
호주		71.60	5.10	0.31	12.40	4.60	22.10	33963
오스트리아		68.60	5.20	0.27	6.60	2.10	33.00	33496
벨기에		61.00	8.50	0.27	8.80	2.40	52.90	32063
캐나다		72.50	6.80	0.32	12.00	3.40	29.90	35002
덴마크		75.50	4.80	0.23	5.30	2.90	71.70	33196
핀란드		68.50	8.40	0.27	7.30	0.40	72.40	30695
프랑스		63.20	9.30	0.28	7.10	2.00	8.00	29759
독일		65.50	10.60	0.30	11.00	0.70	21.60	31380
그리스		60.30	9.90	0.31	12.60	3.40	23.00	24928
아일랜드		67.10	4.40	0.32	14.80	2.30	34.20	38693
이탈리아		57.50	7.70	0.35	11.40	2.10	33.80	28122
일본		69.30	4.40	0.31	14.90	-1.20	18.80	30310
한국		63.70	3.70	0.30	14.60	-0.20	9.90	21342
네덜란드		71.10	4.70	0.27	7.70	2.40	21.00	35111
뉴질랜드		74.60	3.70	0.33	10.80	2.40	22.40	24916
노르웨이		75.20	4.60	0.28	6.80	8.70	54.90	47319
포르투갈		67.50	7.70	0.38	12.90	2.50	18.90	20656
스페인		64.30	9.20	0.31	14.10	4.30	15.00	27377
스웨덴		73.90	7.30	0.24	5.30	0.90	76.50	32298
스위스		77.20	4.40	0.27	8.70	0.10	19.40	35839
영국		72.60	4.80	0.34	8.30	2.20	28.80	32695
미국		71.50	5.10	0.37	17.10	3.30	12.00	41718

4. 2007년

국가명	변수명	고용률 (%)	실업률 (%)	지니 계수	빈곤율 (%)	Inflation rate (%)	Union density (%)	1인당 GDP (달러)
호주		72.90	4.40	0.31	12.40	4.40	18.50	37565
오스트리아		71.40	4.40	0.27	6.60	2.10	31.70	37119
벨기에		61.60	7.50	0.27	8.80	2.40	52.90	35382
캐나다		73.60	6.00	0.32	12.00	3.10	29.40	38500
덴마크		77.30	3.80	0.23	5.30	2.00	69.10	35961
핀란드		70.50	6.90	0.27	7.30	2.90	70.30	34718
프랑스		64.00	8.30	0.28	7.10	2.50	7.80	32686
독일		69.00	8.40	0.30	11.00	1.90	19.90	34391
그리스		61.50	8.30	0.31	12.60	2.90	9.90	28423
아일랜드		69.00	4.70	0.32	14.80	1.40	31.70	45027
이탈리아		58.70	6.20	0.35	11.40	2.30	33.30	30381
일본		70.70	3.90	0.31	14.90	-0.70	18.30	33626
한국		63.90	3.20	0.30	14.60	1.20	10.00	24801
네덜란드		74.10	3.20	0.27	7.70	1.50	19.80	39225
뉴질랜드		75.40	3.60	0.33	10.80	4.30	22.00	27431
노르웨이		77.50	2.60	0.28	6.80	2.20	53.70	53477
포르투갈		67.80	8.10	0.38	12.90	3.00	18.90	22815
스페인		66.60	8.30	0.31	14.10	3.20	14.60	31586
스웨덴		75.70	6.20	0.24	5.30	2.90	70.80	36603
스위스		78.60	3.60	0.27	8.70	1.80	19.00	41101
영국		72.30	5.30	0.34	8.30	2.90	28.00	35669
미국		71.80	4.60	0.37	17.10	2.70	11.60	45489

<부록 3> 모델의 회귀계수 값

1. 유연안정화 정책

	고용률	실업률	지니계수	빈곤율
flexibility	3.484***	-1.313***	0.002	-0.316
security	0.260	0.439*	-0.017***	-1.865***
inflation	-0.384	0.163	0.003*	0.034
union density	0.054*	-0.006	-0.0007***	-0.065***
GDP per capita	0.0002	-0.00003	-0.0000005	0.00002
intercept	63.789***	6.525***	0.335***	11.771***
R-square	0.537	0.435	0.569	0.616

주: * ($\alpha = 0.1$), ** ($\alpha = 0.05$), *** ($\alpha = 0.001$) 의미에서 유의하다는 의미

2. 유연화 정책

	고용률	실업률	지니계수	빈곤율
flexibility	3.460***	-1.354***	0.003	-0.142
inflation	-0.412	0.116	0.005**	0.233
union density	0.059**	0.003	-0.001***	-0.104***
GDP per capita	0.0002	-0.00003	-0.0000009	-0.00002
intercept	63.503***	6.043***	0.353***	13.822***
R-square	0.536	0.413	0.440	0.413

주: * ($\alpha = 0.1$), ** ($\alpha = 0.05$), *** ($\alpha = 0.001$) 의미에서 유의하다는 의미

3. 안정화 정책

	고용률	실업률	지니계수	빈곤율
security	-0.047	0.554*	-0.017***	-1.837***
inflation	-0.643*	0.260*	0.003*	0.057
union density	0.038	-0.0002	-0.0007***	-0.064***
GDP per capita	0.0005***	-0.0002***	-0.0000004	-0.00001
intercept	52.868***	10.642***	0.329***	12.762***
R-square	0.333	0.248	0.568	0.611

주: * ($\alpha = 0.1$), ** ($\alpha = 0.05$), *** ($\alpha = 0.001$) 의미에서 유의하다는 의미

The Impact of Labor Flexicurity Policy on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in the OECD Countries

Park Sung-Joon

The outstanding performance of some nations in Central and Northern Europe such as Denmark and the Netherlands in the labor market is much indebted to their policy to help labor flexicurity. In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replicating the Dutch or Danish performance in the labor market is explored in case of adopting such policy in the 22 OECD countries.

If implementing the flexicurity policy in the 22 member countries of the OECD leads to strong performance in the labor market, this policy can be globally shared as universal labor policy to provide a win-win situation among the labor, management and the authorities on the matter, paving the way for replacing the Anglo-Saxon policy characterized by high flexibility and low security, or the European alternative with a lower level of flexibility and a higher level of security.

Our research results show that flexicurity policy is likely to bring significant benefits in the labor market, as illustrated by growth in the employment rate, the fall in the unemployment rate,

and some progress in alleviating poverty. Therefore, policy to help labor flexicurity can have a far-reaching positive effective on the labor-market performance, which is not limited to some countries of Central or Northern Europe. Despite their striking difference in the inherent conditions, OECD countries are also expected to enjoy favorable outcomes from adopting the same policy as that of their Central or Northern European counterparts.

The abovementioned discussion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Korea. As indicated by case studies, flexicurity policy originally employed in the Netherlands and Denmark is particularly attractive. In addition, our empirical research suggests that flexicurity policy results in strong performance in the labor market regardless of which country the policy is exported into. So, it's plausible that Korea's labor market will also benefit from adopting flexicurity policy. Now, the question boils down to detailed measures of how to improve both flexibility and security. For greater flexibility, it is worth considering allowing firms more discretion in hiring and firing like Denmark or promoting the use of part-time workers like the Netherlands. For income security, it is required to come up with specific programs tailored 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Korean labor market, and related issues include what percentage of the former salary should be given as unemployment benefit, how to carry out job training, how to manage the social safety net, and so on. One undeniable thing is that the policy to help labor flexicurity has settled down as a major trend in the labor policy of OECD countries.